

한국판 상태자존감척도(K-SSES)의 타당화 연구*

박 홍 석

성신여자대학교
교양학부

이 정 미[†]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의 상태자존감 측정을 위한 신뢰롭고 타당한 다차원적인 척도의 제안을 목적으로 세계의 연구로 진행되었다. 연구 1에서는, Heatherton과 Polivy(1991)의 State self-esteem scale(SSES)을 번안·수정한 한국판 상태자존감척도(K-SSES)의 요인구조를 탐색하고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통해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 239명(표본 1)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3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각각 수행자존감, 일반자존감, 사회자존감이라 명명하였다. 또한, 공인타당도 검증결과, Rosenberg 자존감척도(RSES), 자기효능감척도, 심리적 안녕감척도, 신체존중감척도와 같은 자기개념 관련 준거척도들과 모두 양호한 수준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BAI 및 CES-D의 준거척도들과는 양호한 수준의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어, 적합도 검증을 위해 성인 236명(표본 2)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적정수준의 적합도를 나타내어 K-SSES의 3요인 측정모형이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K-SSES가 시간과 상황에 따른 자존감 변화추이를 민감하게 측정하는 상태척도임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2와 연구 3을 통해 각각 두 차례의 준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자존감향상프로그램 실시결과, K-SSES의 총점 및 하위요인점수에서 유의한 자존감 변화가 나타났으므로, K-SSES가 자존감의 상태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척도임이 지지되었다.

주요어 : K-SSES, 자존감, 상태자존감, 특질자존감, 타당화 연구

* 본 연구는 박홍석의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3년 2월, 지도교수 이정미) ‘한국판 상태자존감척도(K-SSES)의 타당화’의 데이터를 일부 사용하였음.

[†] 교신저자: 이정미,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54

Tel: 02-763-7448, E-mail: bice0213@gmail.com

자존감(self-esteem)은 심리학 분야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구인 중 하나이다. 지난 40년간 ‘자존감’이라는 용어를 제목에 사용한 논문은 6,500여 편이며, ‘자기’(self)라는 용어를 제목에 사용한 30,000편 이상의 논문 대다수가 자존감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Rosenberg, Schoenbach, Schooler, & Rosenberg, 1995). 자존감 연구는 크게 자존감 자체를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 자존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 종속변인들에 의한 행동적·심리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 자존감의 발달적 차이 및 성별·연령별 차이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 등으로 나뉘어 진행되어 왔다(차경호, 홍기원, 김명소, 한영석, 2006). 국내에서도 자존감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는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자존감관련 논문을 검색해보면 1972년 이후 학위논문은 7,284건, 학술지논문은 3,431건으로 나타난다. 2011년 한 해 동안 자존감 관련 변인을 주요어로 한 학위논문이 737건이나 발표된 사실을 보더라도 자존감은 사회과학분야에서 중요한 구성개념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존감이 이렇듯 많은 연구자들에게 관심을 받아 온 이유는 건강한 개인 특성의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Harter, 1999). 자존감은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James(1890; 1892)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된 개념으로서 그는 자존감을 ‘유의미한 삶의 영역에서 자신을 유능하다고 평가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Rosenberg(1965)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지향성으로서 자신의 가치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라고 정의하였으며, Coopersmith(1967)는

‘자기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판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며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 스스로 믿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자존감이 높은 이들은 보다 행복하고 심리적으로 건강할 것이라 기대되는 반면(Branden, 1994), 자존감이 낮은 이들은 심리적으로 아프거나 우울하다고 여겨진다(Tennen & Affleck, 1993). 나아가, 자존감이 높은 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부정적 피드백이나 도전들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사회에서 자신이 가치 있고 존중받는다 믿는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이들은 세상을 더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며, 자기 주변에 대한 인식 자체를 싫어한다고 여겨진다(Heatherton & Wyland, 2003).

자존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크게 ‘특질 자존감’과 ‘상태자존감’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특질자존감(trait self-esteem)은 ‘전반적 자존감’(global self-esteem)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시간이나 상황에 있어 안정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 특질자존감은 기질이나 성향과 관련된 유전적 요인으로 간주되며 성인기 내내 안정적인 속성으로 여겨진다(Neiss, Sedikides & Stevenson, 2002). 대표적인 특질자존감척도로는 국내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Rosenberg 자존감척도(RSES; Rosenberg, 1965)를 들 수 있다. 이에 반해, ‘상태자존감’(state self-esteem)은 일상의 자기평가적인 정서반응들을 나타내는데, 일상에서의 어떤 경험들이 자존감을 위협하거나 상승시키는 경우에 반응한다(Brown & Marshall, 2006). James(1890)는 이러한 자기평가적인 정서반응들을 자기가치감과 같다고 하였는데, 스스로에 대해 자랑스러움

이나 기쁨을 느끼는 경우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나,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러한 예라고 하였다.

요약컨대, 특질자존감은 지속적이며 상태자존감은 일시적이라는 것이 이 두 용어의 핵심적 차이라고 하겠다. 자존감연구자들은 ‘자기가치감’을 나타낼 때는 상태자존감을 사용하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생각을 나타낼 때는 특질자존감을 사용하였다(Pyszczynski & Cox, 2004).

Crocker과 Wolfe(2001)는 사람들이 평균적이고 특질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나, 일정 수준 안에서 자존감의 순간적이고 상태적인 평가는 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떠한 사건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영향에 의한 자기가치의 변이는 그 사건을 스스로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이 자기가치를 대표하는 요인들에 영향을 미칠 때, 자존감은 그 특질수준 내에서 높아지기도 또 낮아지기도 한다(Greenier, Kernis, McNamara, Waschull, Berry, Herlocker & Abend, 1999).

자존감의 상태적 속성을 보다 강조한 학자들도 있었는데, Conley(1984)는 자존감이 장기적 안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구조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존감은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으며 그러한 환경적 영향에 의해 자존감의 안정성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Conley, 1984). Kernis, Cornell, Sun, Berry와 Harlow(1993) 역시 자존감의 일상적 변화에 중점을 두었는데, 한 개인의 일상적인 자존감 변화량은 기본적으로 오랜 시간에 의해 만들어진 자존감의 평균 수준

안에서 미래행동을 독립적으로 예측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을 반영하여 Heatherton과 Polivy(1991)는 자존감의 상태적 측면에서의 변화에 초점을 둔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 상태자존감척도(State Self-Esteem Scale; SSES)를 개발하였다. 이들은 처음에 10문항으로 이루어진 Rosenberg 특질자존감척도(RSES)를 이용하여 상태자존감을 측정하려 하였으나, RSES는 자존감의 전체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척도이기 때문에 자기개념의 민감한 변화를 측정하는데 실패하였다. 그리하여, 다차원적인 구성개념으로서의 자기개념을 상태척도에 도입하기 위하여 당시 미국에서 대표적인 자존감 측정 도구였던 Janis-Field Feeling of Inadequacy Scale (JFS; Janis & Field, 1959)을 사용하였으나, 이 역시도 RSES와 마찬가지로 상태자존감을 측정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리하여 상태자존감척도를 개발하고자 여러 JFS 수정판 중 Pliner, Chaiken, 그리고 Flett(1990)의 수정판과 Fleming과 Courtney(1984)의 수정판 두 척도의 5개 하위요인, 즉 학업(academic), 수행(performance), 사회(social), 외모(appearance), 일반(general) 자존감 영역에서 각각 네 개씩의 문항을 선택하여 총 20개의 예비문항을 제작한 후,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모자존감, 수행자존감, 사회자존감의 3개 요인으로 이루어진 SSES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개발된 상태자존감척도(SSES)는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동안 총 1,200회 이상 인용되어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어오고 있다. 주로 사용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뇌졸중 환자의 상태자존감 연구(Chang & Macjenzie, 1998), 타인에 대한 영향력과 자존감 간의 관계 연구

(Wojciszke & Kujalowicz, 2007), 묵시적 자존감 및 명시적 자존감 간 직관과 상관 연구(Jordan, Whitefield & Zeigler-Hill, 2007). 절차적 공정성 반응에 대한 자존감의 조절효과 분석 연구(Wiesenfeld, Swann, Brocker & Bartel, 2007), 사회적 비교와 신체에 대한 매체 이미지와 자존감 간의 관계 연구(Hobza, Walker, Yakushko & Peugh, 2007)등 자존감의 변화에 주목하는 연구에서 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자존감’, ‘자기 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주요어로 검색한 결과, 2011년 한 해 동안 간행된 국내 학술지 논문 457편이 검색되었다. 그 중 자존감 척도를 사용한 연구는 205편이었으며, 특별히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151편 중 136편(90.07%)에서 RSES가 사용되었다. 이처럼 국내 자존감 연구의 90% 이상이 특질자존감 척도인 RSES를 측정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상황이나 시간에 따른 자존감의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조차 상황과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 속성의 특질자존감척도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연구자들이 국내 타당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번안척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사고 있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동귀, 양난미, 박현주(2013)는 RSES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전반적 자존감을 측정하는 척도들은 동일한 척도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각기 번안되어 동일 문항이 다양한 버전으로 번안되거나, 일부 문항이 누락되는 등 일관된 타당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바 있기도 하다.

본 연구는 상태자존감이 특질자존감과 완전하게 독립적일 수는 없었지만, 상황적 요소에 따른 변화양상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사각에서 출발하여, 상황에 따

른 자존감의 변화 추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는 Heatherton과 Polivy(1991)의 SSES를 한국판으로 타당화하기 위해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되었는데, 척도로서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연구인 연구 1과, 상태척도로서의 민감성을 입증하기 위한 후속 연구로서 간단한 준실험 연구인 연구 2와 연구 3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 1에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 239명의 자료(표본 1)를 토대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제안된 요인과 문항들을 토대로 원칙적인 SESS 개발 당시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했던 준거척도들과 유사한 국내 척도들을 사용하여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어 표본 1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236명의 자료(표본 2)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연구 2와 연구 3에서 연구 1에서 제안된 K-SSES가 과연 자존감의 상태적 속성에 대한 민감한 측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준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각 연구의 연구 방법과 결과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다음과 같다.

연구 1

방 법

연구대상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해 서울시 소재 대학교 2개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각각 250명(표본 1), 263명(표본 2)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표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조사에서 수집된 표본 1은 전체 응답자 250명 중 문항을 빠뜨리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거한 후 최종 239명의 자료가 포함되었다. 평균 연령은 21.36세(SD=2.70)로서 남자는 165명(69.04%)이었고, 여자는 74명(30.96%)이었다. 두 번째 조사에서 수집된 표본 2는 전체 응답자 263명 중 역시 문항을 빠뜨리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거하고, 최종 236명의 자료가 포함되었는데, 평균 연령은 21.25세(SD=2.84)로서, 남자는 190명(80.51%)이었고, 여자는 46명(19.49%)이었다.

측정도구

한국형 상태자존감척도(K-SSES)의 예비척도

상태자존감 측정을 위해 Heatherton과 Polivy (1991)가 개발한 척도로서 수행자존감 7문항, 외모자존감 6문항, 사회자존감 7문항 등 3요인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5점 Likert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예비척도를 제작하였다. 우선 원저자인 Heatherton와 의 서신교환을 통해 척도의 한국 타당화를 위한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번역과 역번역을 실시하였다. 역번안은 원척도와 번역된 척도간의 동등성을 평가하는 판단방법 중 하나로서 번역의 질을 평가하는데 효과적이며 (Hulin, Drasow & Komocar, 1982), 원검사와 가장 유사하게 번안된 검사를 만드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Wener & Campbell, 1970).

영어로 된 원척도를 연구자들이 한국어로 번안한 후 영어와 한국어 모두에 능통한 심리학 박사 1인의 역번안 문항들과 비교하여 수정하였다. 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어와 한국어 이중언어사용자 성인 7명을 대상으로 원문과 내용의 일치성을 확인하였다. 이후 번안자들 간 합의를 통해 원문과 가장 적절한 문항을 도출하였으며, 마지막 단계에서 심리학 박사 2인의 내용타당도 검토를 거쳐 최종 20문항으로 이루어진 예비척도가 완성되었다.

상태척도인 만큼 검사 수행 시 지시문이 매우 중요하다는 원 개발자의 조언에 따라, SSES의 지시문(“아래 문항의 내용에 대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순간 느끼는 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기초하여 한국판 척도의 지시문도 동일한 방식을 따랐다. Heatherton과 Polivy (1991)의 연구에서는 전체 내적일치도는 .9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9로 나타났다.

자존감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

Rosenberg(1965, 1979)가 개발한 척도로서 국내에서는 전병재(1974)가 처음 번안하여 사용한 이래, 이훈진과 원호택(1995) 등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해왔다. 본 연구에서도 전병재(1974)가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한 RSES를 사용하였다. 5점 Likert척도로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기보고식 검사로 구성되었다. 서수균과 권석만(2002)의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8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4로 나타났다.

Beck의 불안척도(Beck Anxiety Inventory; BAI)

이 척도는 Beck과 Steer(1988)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4점 Likert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Kwon(1992)이 번안한 한국판 Beck 불안질문지를 사용하였는데, Kwon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93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CES-D)

Radloff(1977)에 의해 개발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CES-D Scale)은 증상의 경험기간을 기준으로 우울증의 정도를 측정하도록 제작된 간결한 척도로서, 지역 사회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조사용 척도이다(조맹제, 김계희, 1993). 본 연구에서 사용된 CES-D척도는 전경구와 이민규(1992)에 의해 타당화된 한국판 척도로서, 총 25개 문항으로 되어 있고, 4점 Likert방식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우울정서’, ‘긍정적 정서’, ‘대인관계’, ‘신체적 저하’의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경구와 이민규(1992)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8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척도(Self-Efficacy Scale; SES)

자기효능감척도는 비교적 안정성 있는 개인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아영과 차정은(1996)이 개발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의 수정판(김아영, 1997)을 사용하였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자신감’, ‘자

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의 세 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한 24개 문항으로 되어 있다. 5점 Likert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아영(1997)의 연구에서, 하위요인인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의 내적일치도는 각각 .79, .86, .8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85, .90, .71로 나타났다.

신체존중감척도(Korean Overall Body Esteem Scale; KOBES)

이 척도는 신체에 대한 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완석(2007)에 의해 개발되고 타당화된 척도로서 ‘체중존중감’, ‘외모존중감’, ‘체기능존중감’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총 18개 문항의 자기보고형 질문지이다. 자신의 외모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기록하는 것으로 4점 Likert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완석(2007)이 보고한 하위요인별 내적일치도는 체기능존중감, 외모존중감, 체중존중감이 각각 .89, .87, .8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87, .87, .76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

심리적 안녕감척도(PWBS)는 Ryff(1989)가 이론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것으로 강건하게 인정받고 있는 심리적 속성들을 토대로 개발한 다차원척도이다. ‘자기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의 여섯 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가 한국판으로 번안하여 타

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명소 등(2001)의 연구에서 각 하위 변인들의 내적일치도는 자기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이 각각 .76, .72, .73, .70, .69, .6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80, .83, .73, .76, .81, .74로 나타났다.

자료의 분석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K-SSES의 하위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표본 1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일치도인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SPSS 18.0을 이용하였으며, 요인의 추출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 ML)을 사용하였고, 회전은 직각오블리민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추출된 요인 간에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가정되므로 이순목(1995)의 권고에 따라 사각회전(oblique rotation)을 하였다. 또한 K-SSES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준거척도들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Pearson's r 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표본 2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표본 1에서 추출된 K-SSES의 요인구조가 새로운 표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검증하였다. 기술통계치와 변량분석을 위해 SPSS Program 18.0을 이용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AMOS Program 18.0을 이용하였으며, 모수 추정방식으로는 역시 최대우도법(ML)을 이용하였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K-SSES 예비척도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예비척도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등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였고, 이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절대값 기준으로 왜도는 .04~1.16, 첨도는 .04~1.03의 값이 나타나 각 문항의 분포가 정규분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예비척도 20개 문항 전체에 대한 신뢰도분석 결과, 문항-총점 간 상관관계가 .30 이하인 문항이 하나도 없었으므로, 예비문항 20개 전체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주어진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KMO와 Bartlett 검정을 실시한 결과, KMO값이 .87로 나타나 기준치인 .60 이상이므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Bartlett의 유의도 검증 역시 유의한 수준($\chi^2 = 1.77, p < .001$)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이 가능할 만큼 변인들 간에 충분한 상관을 보여주는 자료임이 입증되었다.

이어, 척도로서의 요인구조 및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최대우도법과 사각회전방법을 통한 요인분석결과, 9번 반복계산 후 요인이 추출되었다. 고유치(eigen value)가 1.0을 넘는 요인의 수는 모두 4개로 그 값은 각각 6.59, 2.32, 1.34, 1.10으로 나왔으나, 스크리 검사 결과와 척도의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여 요인 수를 3개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리하여 요인수를 3개로 지정하고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역시 9번 반복회전하여 요인회전이 수렴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χ^2 값은 358.26($df=167, p < .001$)로

표 1. K-SSES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N = 239)

문 항	1요인	2요인	3요인	평균	표준 편차
15. 나는 지금 이 순간 다른 사람들에 비해 열등하다고 느낀다.*	.70			4.15	1.00
18. 나는 지금 이 순간, 다른 이들보다 학업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68			3.75	1.15
19. 나는 내가 일을 잘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느낀다.*	.64			3.81	1.06
5. 나는 내가 읽은 것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느낀다.*	.59			4.10	.94
4. 나는 내 수행에 대해 좌절스럽거나 당황스럽게 느낀다.*	.56			3.91	.94
16. 나는 매력이 없다고 느낀다.*	.54			4.26	.96
20. 나는 바보같이 보일까봐 걱정한다.*	.47		.37	4.10	1.06
10. 나는 나 자신이 못마땅하다고 느낀다.*	.34			4.17	.89
12. 나는 지금 내 외모에 흡족해한다.		.72		2.99	1.11
3. 나는 지금 내 몸매가 만족스럽다고 느낀다.		.72		2.42	1.28
11.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좋다고 느낀다.		.66		3.48	1.07
6. 나는 다른 이들이 나를 존경하거나 존중한다고 느낀다.		.59		2.79	1.04
1. 나는 내 능력에 대해 자신이 있다고 느낀다.		.59		3.40	.96
14. 나는 일들을 이해하는데 자신감을 느낀다.		.59		3.26	1.02
9. 나는 다른 이들만큼 영리하다고 느낀다.		.58		3.13	1.09
7. 나는 내 체중이 불만족스럽다.*		.36		3.54	1.34
13.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해 걱정한다.*			.78	3.18	1.14
8. 나는 남의 시선을 의식한다.*			.59	3.02	1.01
2. 나는 내가 성공한 이로 여겨질지, 실패한 이로 여겨질지 걱정한다.*			.42	3.15	1.06
17. 나는 내 인상에 대해 염려한다.*			.34	3.56	1.16
고유치	6.59	2.32	1.34		
누적설명변량(%)	30.14	39.06	43.13		

* 역채점문항

나왔으며, 이 값을 토대로 모형적합도지수를 구해보면, RMSEA=.07로 나와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요인분석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문항이 하나의 요인에 .30 이상의 요인부하값을 나타내었으나, 20번 문항(나는 바보같이 보일까봐 걱정한다)만이 2개 요인에 걸쳐 각각 .47과 .37의 부하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두 부하값의 차이가 .10으로서 무시해도 될 정도의 작은 크기가 아니고, 원칙도의 문항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이후의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K-SSES의 신뢰도 검증

신뢰도분석을 통해 K-SSES의 문항들 간의 내적일치도를 산출하였으며, 각 하위요인별 문항-총점 간 상관은 표 2에 제시하였다. Cronbach's α 값을 산출을 통한 신뢰도분석 결과, 각 요인 내 문항 간 내적일치도는 각각 .86, .83, .71로 나타나 각 요인 내 문항들 간의 동질성이 입증되었다.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거쳐 최종 확정된 K-SSES의 문항은 20개이며, 문항 간 상관행렬표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 K-SSES의 하위요인에 대한 명명은 다음과 같다. 제 1요인은 원칙도인 SSES의 수행자존감(Performance Self-Esteem)요인의 문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수행자존감'이라 명명하였다. 제 2요인은 SSES의 외모자존감(Appearance Self-Esteem) 요인의 문항들과 수행자존감 요인의 문항들이 섞여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된 바, K-SSES에서는 이를 '일반자존감'이라 명명하였다. 제 3요인은 SSES의 '사회자존감'(Social Self-Esteem) 요인의 문항구성과 동일하여, '사회

표 2. K-SSES 요인별 내적일치도 및 문항-총점상관 (N = 239)

요인	문항 번호	문항-총점 간 상관	문항 삭제 시 Cronbach's α	Cronbach's α
1	4	.61	.84	.86
	5	.52	.85	
	10	.50	.85	
	15	.62	.84	
	16	.62	.84	
	18	.68	.83	
	19	.65	.84	
2	20	.63	.84	.83
	1	.59	.81	
	3	.58	.81	
	6	.56	.81	
	7	.41	.84	
	9	.57	.81	
	11	.61	.80	
3	12	.61	.80	.71
	14	.59	.81	
	2	.45	.67	
	8	.51	.63	
	13	.60	.57	
전체	17	.42	.69	.89

자존감'이라 명명하였다.

K-SSES의 타당도 검증

Heatherton과 Polivy(1991)는 자존감, 우울, 불안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SSES의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각 변인의 타당

화된 척도인 RSES, BDI, STAI 등을 사용하였다. 또한 상태자존감과 관련 있을 것으로 가정되는 공격성, 외모만족도, 키만족도 등에 대한 측정도구들을 사용하였다. 이에 준하여, K-SSES의 타당도 검증 역시 Rosenberg의 자존감척도(RSES), 불안척도(BAI), 우울척도(CES-D), 신체존중감척도(KOBES)를 사용하였으며, 선행 연구들에서 상태자존감척도와 관련이 있다고 가정되는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과 상관분석을 위해 자기효능감척도(SES)와 심리적 안녕감척도(PWBS)를 사용하였다.

K-SSES의 하위요인 및 관련 척도들 간의 상관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K-SSES 총점과 하위요인들 간 상관을 살펴보면, 유의수준 .01에서 .73~.85에 이르는 적정 수준의 상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하위요인 간 상관을 살펴보면 모두 유의수준 .01에서 .32~.58에 이르는 적정 수준의 변별력을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상태자존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되는 특질자존감척도(RSES), 불안척도

(BAI), 우울척도(CES-D), 자기효능감척도(SES), 신체존중감척도(KOBES), 그리고 심리적안녕감척도(PWBS)와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표 3에서 보듯이, K-SSES는 모든 척도들과 유의수준 .01에서 기대되는 방향으로 .46에서 .76에 이르는 양호한 수준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각 준거척도와 K-SSES의 하위요인별 상관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특질자존감척도인 RSES는 일반자존감과는 .71($p < .01$)의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수행자존감과는 .52($p < .01$)의 중등도 상관을, 사회자존감과는 .38($p < .01$)의 다소 낮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불안척도인 BAI는 수행자존감과 -.47($p < .01$)의 중등도 상관을, 사회자존감 및 일반자존감과는 각각 -.36($p < .01$)과 -.30($p < .01$)의 낮은 상관을 나타내어 차이를 보였다. 우울척도인 CES-D는 수행자존감과 -.62($p < .01$)의 중등도 상관을 나타내었고, 일반자존감 및 사회자존감과는 각각 -.48($p < .01$)과 -.47($p < .01$)의 중등도 상관을 나타내었다. 자기효능감척도인 SES는 일반자존감과 .65($p < .01$), 수행자

표 3. K-SSES과 하위 요인들 간 상관 및 관련 변인들과의 상관 (N=239)

구 분	N	평균(표준편차)	K-SSES	수행자존감	일반자존감	사회자존감
수행자존감	232	4.03(.73)	.85**			
일반자존감	233	3.05(.78)	.80**	.43**		
사회자존감	235	3.23(.79)	.73**	.58**	.32**	
RSES	238	3.03(.43)	.70**	.52**	.71**	.38**
BAI	236	1.36(.50)	-.46**	-.47**	-.30**	-.36**
CES-D	237	.70(.49)	-.67**	-.62**	-.48**	-.47**
SES	224	3.38(.56)	.71**	.60**	.65**	.44**
KOBES	232	2.94(.51)	.68**	.48**	.70**	.38**
PWBS	219	3.54(.53)	.76**	.61**	.70**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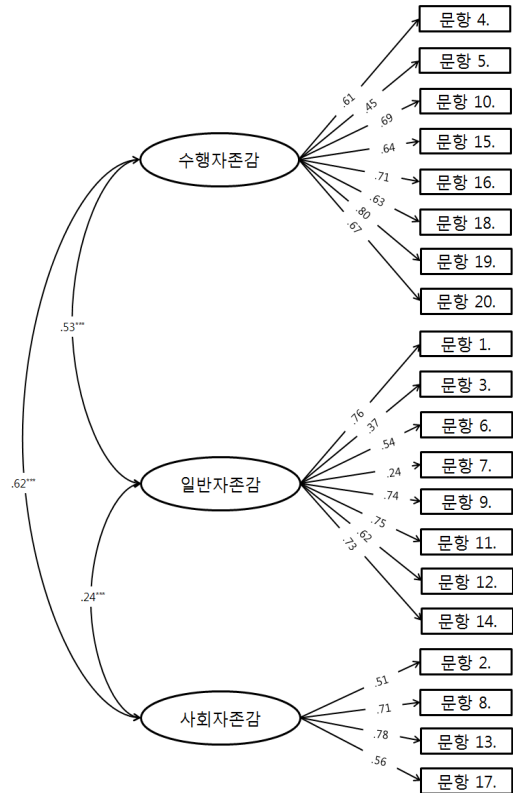
** $p < .01$

존감과 .60($p < .01$)의 높은 상관을, 사회자존감과는 .44($p < .01$)의 다소 낮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신체존중감척도인 KOBES는 일반자존감과 .70($p < .01$)의 높은 상관을 보인 반면, 수행자존감과는 .48($p < .01$)의 중등도 상관을, 사회자존감과는 .38($p < .01$)의 낮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끝으로, 심리적안녕감척도인 PWBS는 일반자존감과 .70($p < .01$)의 높은 상관을, 수행자존감과 사회자존감과는 각각 .61($p < .01$)과 .50($p < .01$)의 중등도 상관을 나타내었다.

K-SSES의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제안된 K-SSES의 3요인구조(그림 1 참고)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본 2(N=236)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AMOS Program 18.0을 사용하였으며 분석은 최대우도법(ML)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를 보면, SSES의 경우 척도개발 당시인 1991년에는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한 연구가 실시되지 않았으나, 후속연구에서 $\chi^2 = 12.15$ ($p < .05$), RNI=.90의 값으로 3요인 구조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명된 바 있다 (Bagozzi & Heatherton, 1994). 그러나 모형이 실제 자료와 부합되는 정도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χ^2 값은 표본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χ^2 차이 값도 역시 표집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홍세희, 2000). 또한, RNI값은 표본이 아닌 모집단에 기초하기 때문에(배병렬, 2005), 최근의 적합도 검증연구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크기에 비교적 덜 민감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반영하는 적합도 지수인 RMSEA와



*** $p < .001$

그림 1. K-SSES의 3요인 구조모형

TLI, CFI를 중심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K-SSES의 3요인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의 산출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K-SSES의 3요인 구조모형의 주요 적합도 지수는 $\chi^2_{(df=431)}=358.26$, CFI=.88, TLI=.85, RMSEA=.07이었다. TLI와 CFI가 양호한 적합도 판단기준인 .90에 다소간 못 미치는 것은 하지만, RMSEA의 경우엔 양호한 적합도 기준인 .08 이하로 나타났다. 이로써 K-SSES의 3요인 구조모형이 자료를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겠다.

표 4. K-SSES의 3요인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N = 236)

Model	df	χ^2	CMIN/DF	TLI	CFI	RMSEA(90%신뢰구간)
K-SSES	167	358.26	2.15***	.85	.88	.07(.06~.08)

*** $p < .001$

논 의

연구 1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판 상대자존감척도(K-SSES)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판 상대자존감척도(K-SSES)는 원척도인 SSES와 동일하게 세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신뢰도분석 결과, 20개 문항 전체의 내적일치도와 각 하위요인별 내적일치도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각 요인이 동질적인 문항들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에서는 원척도와 다소간 차이를 보였는데,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K-SSES의 제 1요인(수행자존감)을 구성하는 여덟 문항 중 10번, 15번, 20번 문항의 경우 원척도인 SSES에서는 사회자존감 요인의 문항이었고, 16번 문항은 외모자존감 요인의 문항이었다는 점이다. 이 문항들이 수행자존감에 속하는 다른 문항들과 함께 추출된 까닭은 아마도 이들 문항을 사회적 상황이나 외모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했던 미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자신을 못마땅하다고 느끼거나(10번 문항), 타인에 비해 열등하다고 느끼는 것(15번 문항), 또는 바보같이 보일까봐 걱정하거나(20번 문항), 매력이 없다고 느끼는 것(16번 문항)을 모두 '수행' 장면과 연결 지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정말로 양국 간의 문화적인 차이에만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본 연구에서 명확히 밝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K-SSES의 제 2요인(일반자존감)은 자신의 능력과 외모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 자신 및 타인으로부터의 호감 및 존중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원척도인 SSES의 개발자들이 문항개발과정에서 요인분석결과 일반자존감, 외모자존감, 학업자존감 영역의 예비문항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 추출된 결과와 동일한 양상의 결과이다. 다만, 원 개발자들은 이에 대해 '외모자존감'이라는 요인명을 붙였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이들 문항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인들에게 일반적인 자기 가치에 대한 평가로 인식되고 있다는 해석에 근거하여 '일반자존감'이라 명명하였다.

끝으로, K-SSES의 제 3요인(사회자존감)은 타인의 눈에 비치는 모습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원척도인 SSES에서도 사회자존감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로서 이들 네 문항에 대해서는 미국인과 한국인이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같은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은 요인의 구성이 문항의 응답방향에 기인한 방법효과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개 응답자들은 긍정문항은 문

항을 읽는 그대로 답변하는 반면, 부정문항은 긍정문항에 비해 덜 익숙한 형태이므로 고유의 반응형태가 생겨서 방법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문화, 연령, 검사내용, 성별 및 다양한 심리적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홍세희, 노연경, 정송, 2011), 본 연구결과만으로 분명하게 밝히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K-SSES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척도인 SSES가 수렴타당도를 검증할 때 사용했던 척도들과 유사하게 자기개념 관련변인들을 측정하는 도구들을 준거척도로 선정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척도들과의 상관분석 결과, K-SSES 총점 및 수행자존감, 일반자존감, 사회자존감 하위척도가 모두 이들 준거척도들과 기대되는 방향으로 적정 수준의 상관을 나타내었는데, RSES, KOBES, SES, PWBS와는 적정 수준의 정적 상관을, BAI와 CES-D와는 적정 수준의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신체존중감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도 높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Heatherton과 Polivy (1991)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건강한 사회적 관계(Hendrick & Adler, 1988)와 높은 주관적 안녕감(Diener & Diener, 1995), 높은 학업성취(Hansford & Hattie, 1982)를 보인다는 선행연구결과들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K-SSES와 준거척도들과의 상관분석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RSES와의 상관을 보면 ‘일반자존감’만이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고, ‘수행자존감’이나 ‘사회자존감’은 중등도 혹은 낮은 수준의 상관을 나타내어 상태자존감척도

인 K-SSES가 특질자존감척도인 RSES와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뜻하는 자기효능감에 대한 척도인 SES와의 상관을 보면 ‘수행자존감’이나 ‘일반자존감’과는 중등도 이상의 상관을 나타내었으나,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염려나 걱정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회자존감’과는 낮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존감이 자기효능감과 개념적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는 문제제기(Branden, 1992)에도 불구하고, K-SSES가 상태자존감 척도로서 자기효능감과 자존감 간의 개념적 구분을 어느 정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반면에, CES-D나 BAI와 부적 상관을 나타낸 결과는 우울증상(Block, Gjerde & Block, 1991)이나 건강문제(Antonucci & Jackson, 1983), 반사회적 행동(Rosenberg, Schoenbach, Schooler, & Rosenberg, 1995)과 같은 심리적 문제들과 낮은 자존감이 정적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으며, SSES가 우울, 불안 및 적대감과 같은 임상척도들과 부적 상관을 보인 결과(Heatherton & Polivy, 1991)와도 궤를 같이 한다고 하겠다. 나아가, CES-D 및 BAI와의 상관분석에서 수행자존감 요인과의 상관이 다른 K-SSES의 두 하위요인인 ‘일반자존감’이나 ‘사회자존감’ 요인과의 상관보다 더 큰 부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불안이나 우울이 낮은 수행자존감과 비교적 강한 연관이 있음을 나타낸다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끝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추출되었던 3요인 구조모형이 자료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Heatherton과 Polivy (1991)의 연구결과와 동

일한 결과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K-SSES가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태자존감척도로서 신뢰롭고 타당하며, 수행자존감, 일반자존감, 사회자존감의 3요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하겠다.

연구 2

연구 2에서는 K-SSES의 상태척도로서의 민감성을 확인하고자 준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자존감향상을 위한 단기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에 참가자들의 상태자존감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방법과 결과를 기술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방 법

연구대상

수도권 소재 2년제 대학 재학 중인 만 19~24세의 대학생들로서 자존감향상프로그램(4시간)에 참여한 학생 84명 중 프로그램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지 않았거나, 응답에 결측치가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7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모두 여학생이었으며 평균연령은 21.46세(SD=1.19)였다.

절차

본 연구에서 K-SSES의 민감도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 자존감향상프로그램은 4시간 동안 진행된 단회 프로그램으로서, 자존감 향상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하고, 자기를 수용하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려는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갖는 것, 그리고 자신의 성공에 대해 스스로 내적 기준과 자신의 강점을 이해하고,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와 관심을 받는 것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김정진, 김미옥, 2002)와 더불어 자존감이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성이 있다(Branden, 1994)는 견해를 토대로 자기에 대한 긍정적 조망을 중시하는 긍정심리학에 기초하여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은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프로그램의 전반부는 자존감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인식한 자기에 대한 성찰을 통한 이해를 바탕으로, 존재로서의 자기를 수용하는 ‘새롭게 만나는 나’로 이루어져있고, 자기인식과 자기이해, 그리고 자기수용을 주제로 하는 짧은 강의와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의 후반부는 ‘내 안의 보석 찾기’를 통해 성격강점에 기초한 자기이해, 그리고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사회적 측면의 자존감을 설명한 Cooley(1902)의 면경적 자기(looking-glass self) 이론에 기초하여 팀 내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의 생각과 느낌에 대해 팀원들과 나눌 수 있는 활동을 포함하였다. 후반부는 내면의 긍정성을 찾아보고, 자기실현적 삶과 더불어 타인과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삶으로서의 가치를 성찰해보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프로그램의 전반부 도입 국면에 프로그램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문을 통해 K-SSES 사전측정을 실시하였으며, K-SSES의 민감도를

표 5. 자존감향상프로그램 구성

제 목	주제	프로그램 세부 내용
사 전 검 사		
새롭게 만나는 나	자기인식	• 형용사로 자기표현 써보기
	자기이해	• 자기이해의 중요성에 대한 동영상 시청과 강의
	자기수용	• 소그룹활동 : ‘나’를 소개합니다.
휴 식 시 간		
내 안의 보석 찾기	자존감	• 자존감과 삶의 가치
	삶의 가치	• 나만의 가치사전 만들기
	나의 성격강점	• 소그룹활동: 성격강점나무 만들기
사 후 검 사		

알아보기 위하여 후반부 말미에 K-SSES 사후 측정을 실시하였다. 집단은 프로그램 내용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40명씩 두 집단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의한 변화($t=3.45, p<.01$)를 나타내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일반자존감($t=4.29, p<.001$)과 사회자존감($t=2.30,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었으나, 수행자존감($t=.92,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 과

참여자의 상태자존감 t 검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에서 보듯이, 자존감향상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실시한 K-SSES 측정에서 상태자존감 총점이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

논 의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측정한 K-SSES 응답결과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K-SSES가

표 6. K-SSES의 측정시기별 평균과 표준편차 및 차이검증

구분	N	사전		사후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K-SSES 총점	77	3.45	.52	3.62	.56	3.45**
수행자존감	77	4.20	.62	4.25	.63	.92
일반자존감	77	2.85	.66	3.11	.75	4.29***
사회자존감	77	3.18	.80	3.38	.76	2.30*

* $p<.05$, ** $p<.01$, *** $p<.001$

자존감향상프로그램으로 인한 상태자존감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SSES가 시간적·상황적으로 변화하는 자존감의 상태적 변화를 측정하는데 있어 유용한 척도임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하위요인별 변화를 살펴보면, ‘일반자존감’과 ‘사회자존감’은 프로그램 전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수행자존감’은 사전-사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K-SSES 척도 자체의 민감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연구 2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이 수행자존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아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K-SSES를 구성하고 있는 각 하위요인이 변별타당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Heatherton과 Polivy (1991)의 연구에서 학업실패 실험조건 참가자들의 SSES 측정결과 중 하위요인 가운데 ‘수행자존감’만 유의한 감소가 있었던 것과 견주어 본다면, 본 연구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이 원칙적인 개발자들이 실시했던 실험과 동일한 조건은 아닐지라도, 유사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연구 2의 준실험 결과, 자기인식과 이해, 그리고 수용을 통해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고, 자기실현적 삶의 가치와 더불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성찰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대학생들의 ‘일반자존감’과 ‘사회자존감’ 향상에는 기여하였지만, ‘수행자존감’까지 향상시키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집단 없이 실험집단에 게서만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집단이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고 하겠다.

연구 3

이어, 연구 2에서 K-SSES의 상태척도로서의 민감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 프로그램에 ‘수행자존감’ 요소를 포함시키지 못했던 문제와 통제집단을 설정하지 못했던 문제를 보완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준실험설계를 한 연구 3을 실시하였다. 연구 3은 상태자존감척도로서의 K-SSES의 심리측정적 강건함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된 후속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방 법

연구대상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교 2개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2에서 실시했던 자존감향상프로그램에 ‘수행자존감’에서의 변화를 도모하는 활동이 추가로 포함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A교 학생들은 수정된 자존감향상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실험집단으로, B교 학생들은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는 통제집단에 할당하였다. 두 집단 모두 프로그램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참여하고, 사전과 사후에 측정한 K-SESS 질문지에 누락 없이 성실히 응답한 자료들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실험집단은 남성이 49명(58.3%), 여성이 35명(41.7%)이었고, 평균연령은 22.34세(SD=1.72)였다. 통제집단은 남성이 36명(45.0%), 여성이 44명(55.0%)이었고, 평균연령은 22.96세(SD=1.47)였다.

연구절차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전달을 위해 실험 집단의 학생들을 40명 내외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연구 2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4시간)에 팀별 과제의 수행과 발표, 그리고 그에 대한 상호평가 활동(4시간)이 추가된 수정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연구 3의 프로그램에 새로이 추가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팀별 과제는 참여자들의 ‘수행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활동으로, 각 집단에서 5~6명씩 소집단으로 팀을 구성하여 성격강점검사를 통해 알아낸 자신들의 대표강점을 지닌 대표적 인물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것이었다. 제시된 주제에 맞게 150분 동안 자신의 팀원들과 공동과제를 수행한 이후 각 팀별로 10분간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각 팀의 발표가 있는 후 모든 참여자들은 발표한 팀에게 과제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모든 팀이 다른 팀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었고 개별팀별로 모두 상이 주어

졌다.

실험집단의 참여자들에게는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측정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이 끝난 직후 바로 사후측정을 실시하였다. 반면, 통제집단에게는 아무런 처치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여름 계절학기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전 9시에 설문을 실시하고 오후 5시에 2차 설문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결 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검사시기(사전, 사후)에 따른 상태자존감 및 하위요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7과 같이 나타났고, 처치조건(실험집단과 통제집단)과 측정시기(사전, 사후)에 관한 반복측정변량분석 결과는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표를 살펴보면, K-SSES 총점($F(1, 156)=11.47, p<.01$) 및 하위요인인 수행자존감($F(1, 164)=4.28, p<.05$), 일반자존감($F(1, 164)=4.36,$

표 7. 처치조건과 측정시기에 따른 K-SSES의 평균과 표준편차

측정요인	집단	N	사전		사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상태자존감 총점	실험	81	3.32	.45	3.52	.32
	통제	82	3.41	.37	3.44	.39
수행자존감	실험	84	3.87	.77	4.11	.56
	통제	83	4.13	.54	4.17	.57
일반자존감	실험	84	2.87	.66	3.00	.60
	통제	83	2.89	.63	2.90	.60
사회자존감	실험	84	3.15	.83	3.36	.82
	통제	84	3.06	.76	3.07	.71

표 8. 처치조건과 측정시기에 따른 K-SSES 및 하위요인에 대한 반복측정 변량분석

종속요인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K-SSES 총점	시기	.96	1	.96	14.59***
	시기×측정시기	.76	1	.76	11.47**
	오차	10.26	156	.07	
수행자존감	시기	1.45	1	1.45	5.86*
	시기×측정시기	1.06	1	1.06	4.28*
	오차	40.52	164	.25	
일반자존감	시기	.50	1	.50	5.54*
	시기×측정시기	.39	1	.39	4.36*
	오차	14.76	164	.09	
사회자존감	시기	.94	1	.94	4.36*
	시기×측정시기	.79	1	.79	3.66*
	오차	35.47	164	.22	

* $p < .05$, ** $p < .01$, *** $p < .001$

$p < .05$), 사회자존감($F(1, 164) = 3.66, p < .05$)에서 모두 처치조건과 측정시기간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논 의

연구 3에서는 연구 2에서 실시했던 자존감 향상프로그램에 새로이 팀별 수행과제를 추가하고, 집단원들로부터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 경험을 유도하여 참여자들의 ‘상태자존감’의 변화를 꾀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처치의 효과를 K-SSES가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의 참여 전과 참여 후 실험집단의 ‘상태자존감’의 변화를 비교하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연구 2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K-SSES 측정치에 대한 처치조건과 측정시간에 따른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K-SSES가 수정된 자존감향상프로그램에 의한 대학생들의 상태자존감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하위요인별 변화를 살펴보면, 상태자존감 총점은 물론이고, ‘일반자존감’, ‘사회자존감’, 그리고 ‘수행자존감’에서도 모두 처치조건과 측정시기 간의 상호작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로써 수정된 자존감향상프로그램으로 인한 상태자존감의 변화를 K-SSES가 민감하게 측정해 내었다고 볼 수 있겠다.

종합논의

본 연구는 한국판 상태자존감척도(K-SSES)의

타당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자료를 분석한 연구 1을 통해 한국판 상태자존감척도(K-SSES)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이어 상태척도로서의 민감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존감 향상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참여자들의 상태자존감의 변화를 검증한 연구 2와 3을 진행하였다. 각 연구에서 얻은 결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1에서는 표본 1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수행자존감, 일반자존감, 사회자존감의 3요인을 추출하였으며 K-SSES는 최종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자존감, 불안, 우울, 자기효능감, 신체자존감, 심리적 안녕감과 같은 관련변인을 측정하는 준거척도들과의 상관을 분석함으로써 척도로서의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K-SSES가 적정 수준의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나타내어 척도로서의 강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표본 2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SSES의 3요인 구조모형의 적합도가 적정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K-SSES는 수행적·일반적·사회적 측면의 상태자존감을 측정하는 심리측정적으로 강건한, 다차원 척도임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연구 2와 연구 3에서는 K-SSES가 상황에 따른 자존감의 변화를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는 상태척도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자존감의 단기적 상승을 유도하는 자존감향상프로그램을 통해 짧은 시간의 자존감 변화를 유도하여 그 변화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사회심리학자인 Heatheron과 Polivy(1991)는 원칙도인 SSES 개발 당시 참여자들의 자존감을 위협하는 조건으로 어려운 시험 문제의

제시, 성적의 통보, 다양한 실패 경험 등의 실험조작을 통해 상태자존감 및 하위요인의 민감한 변화를 측정하여 상태척도임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상담 및 임상현장에서 내담자나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자존감 향상을 보다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하다는 자각에서 시작된 만큼 연구 목적에 맞게 K-SSES가 자존감향상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 참여자들의 상태자존감의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K-SSES 총점은 연구 2와 연구 3에서 모두 뚜렷한 변화를 보여 상태자존감척도로서의 민감성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들이 보다 주목했던 것은 K-SSES의 하위척도들이었는데, 이는 각 구성요인들이 각기 다른 자존감영역의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해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 연구 2와 3에서 단회 자존감향상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의 자존감의 하위영역에서의 변화를 유도하였고, 그에 따른 하위요인별 상태자존감 변화를 K-SSES가 적절히 포착해내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2에서는 긍정적 자기이해를 통한 자존감향상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상태자존감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일반자존감과 사회자존감이 프로그램 참여 후 뚜렷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행자존감의 변화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연구 3에서 수행자존감의 변화를 유도하는 팀별과제 수행과 긍정적 피드백 주고받기 활동이 추가된 수정된 자존감향상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상태자존감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반자존감과 사회자존감뿐 아니라, 수행자존감에서도 프로그램 참여 전후 상태자존감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특질자존감이 매우 중요한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매우 안정적인 심리적 속성이라는 점 때문에 자존감의 변화를 측정해야 하는 상황에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견해(Heatheron & Polivy, 1991)에 동의하며, 자존감의 상태적 변화에 민감한 상태자존감척도가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상태자존감이 특질자존감과 완전하게 독립적일 수는 없겠지만, 상황적 요소에 따른 변화양상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자각에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꽤 지난한 시간을 거쳐 국내 연구에서 성인의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는 특질자존감척도와 달리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상태자존감을 측정하는 타당한 척도를 제안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자존감이 나이, 수입, 신체적 건강, 결혼유무 등 그 어떤 심리학적 구인보다도 삶의 만족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측 값이라는 Diener (1995)의 주장을 고려할 때,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개입이나 자존감의 변화가 다른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의 노력은 개인의 행복한 삶 추구는 물론이고, 사회문제를 이해하거나 해결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주제일 것이라 여겨진다. 자존감의 변화가 중요한 주제가 되는 향후 연구에서 K-SSES와 같은 상태척도를 사용한다면 보다 다양한 관점과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본 연구가 이에 작으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모두 대학생들에 국한되어 있어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일반화하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자존감은 연령별, 교육수준에 따라 파생되는 여러 상황들에 의해 다른 자존감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홍기원, 한영석, 2005)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폭넓은 연령대와 다양한 교육적 배경을 가진 참여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수집방법을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 2와 연구 3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은 K-SSES가 자존감의 상태적 변화를 민감하게 측정해내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4시간(연구 2) 또는 8시간(연구 3) 동안 단회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얻어진 연구결과가 응답자들의 요구특성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후속연구에서는 상태자존감 척도로서의 K-SSES의 심리측정적 강건함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시간적 변화 추이에 따른 자존감의 변화양상을 추적해볼 수 있는 종단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안된 K-SSES의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은 원칙도인 SSES의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과 다소간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가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번역의 오류 때문인지, 혹은 기타 연구자가 파악하지 못한 다른 가외변인에 의한 차이 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본 연구의 결과와 한계점, 그리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바탕으로 추후에 한국인의 상태자존감을 측정할 수 있는 보다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가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 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39.
- 김아영 (1997).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의 관련 변인 연구. *교육심리연구*, 11(2), 1-19.
- 김아영, 차정은 (1996) 자기효능감과 측정.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51 -64.
- 김완석 (2007). 전반적신체준중감척도(KOBES): 개발 및 성차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231-253.
- 김정진, 김미옥 (2002). 장애아동 어머니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자존감의 향상과 우울감의 감소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4, 7-36.
- 배병렬 (2005). Lisrel 구조방정식모델: 이해와 활용. 서울: 도서출판 청람.
- 서수균, 권석만 (2002). 자존감 및 자기에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809-827.
- 이동귀, 양난미, 박현주 (2013). 한국형 자존감 평가영역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1), 271-298.
- 이순목 (1995).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를 중심으로. 서울: 학지사.
-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증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1), 83-94.
- 전경구, 이민규 (1992). 한국판 CES-D 개발 연구 I.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1(1), 65-76.
- 전병재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1, 109-129.
- 조맹제, 김계희 (1993). 우울증 장애인자 예비 평가에서 CES-D의 진단적 타당성 연구. *신경정신의학*, 32(3), 381-399.
- 차경호, 홍기원, 김명소, 한영석 (2006). 한국 성인의 자존감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1), 105-139.
- 홍기원, 한영석 (2005).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한국 성인들의 자존감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2), 135-156.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 노연경, 정 송 (2011). 부정문항이 포함된 검사의 요인구조: 자아존중감 검사의 예. *교육평가연구*, 24(3), 713-732.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Antonucci, T. C., & Jackson, J. S. (1983). Physical health and self-esteem. *Family and Community Health*, 6, 1-9.
- Bagozzi, R. P., & Heatherton, T. F. (1994). A general approach to representing multifaceted personality constructs: Application to state self-este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1), 35-67
- Beck, A. T., Epstein, N., Brown, G., & Steer, R. A. (1988). An inventory for measuring clinical anxiety: Psychometric properties.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56, 893-897.
- Block, J. H., Gjerde, P. F., & Block, J. H. (1991). Personality antecedents of depressive tendencies in 18-year-olds: A prospective

-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60, 726-738
- Branden, N. (1992). *The power of self-esteem*, FL: Health Communications.
- Branden, N. (1994). *The six pillars of self-esteem*. NY: Bantam Books.
- Brown, J. D., & Marshall, M. A. (2006). The three faces of self-esteem. In M. Kernis(Ed.), *Self-esteem: Issues & answers* (pp.4-9). NY: Psychology Press.
- Chang, A. M., & Mackenzi, A. E. (1998). State self-esteem following stroke, *Stroke*, 29, 2325-2328.
- Conley, J. J. (1984). The hierarchy of consistency: Are view and model of longitudinal findings on adult individual differences in intelligence, personality, and self opinion. *Personality & Individual Differences*, 5, 11-26.
- Cooley, C. H. (1902). *Human nature and social order*. NY: Charles Scribner & Sons.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IL: Freeman.
- Crocker, J., & Wolfe, C. T. (2001). Contingencies of Self-Worth. *Psychological Review*, 108(3), 593-623.
- Diener, E. & Diener, M. (1995). Cross -cultural correlation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68, 653-663
- Fleming, J. S., & Courtney, B. E. (1984). The dimensionality of self-esteem: II. Hierarchical facet model for revised measurement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46, 404-421.
- Greenier, K. D., Kernis, M. H., McNamara, C. W., Waschull, S. B., Berry, A. J., Herlocker, C. E., & Abend, T. A. (1999). Individual differences in reactivity to daily events: Examining the roles of stability and level of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67, 185-208.
- Hansford, B. C., & Hattie, J. A. (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and achievement/performance measur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2, 123-142.
- Harter, S. (1999).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A developmental perspective*. NY: Guilford Press.
- Heatheron, T. F., & Wyland, C. L. (2003). Assessing self-esteem. In S. J. Lopez & C. R. Snyder (Eds.), *Positive psychological assessment: A handbook of models and measures* (pp.219-23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eatheron, T. F., & Polivy, J. (199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for measuring state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60, 895-910.
- Hendrick, S. S., Hendrick, C., & Adler, N. L. (1988). Romantic relationships: Love, satisfaction, and staying together.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4, 980 - 988.
- Hobza, C. L., Walker, K. E., Yakushko, O., & Peugh, J. L. (2007). What about men? Social comparison and the effects of media images on body and self-esteem.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8(3), 161-172.
- Hulin, C. L., Drasgow, F. & Komocar, J. (1982). Applications of item response theory to analysis of attitude scale transl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7(6), 818-825.
- James, W. (1890).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Vol.

- 1). NY: Holt.
- James, W. (1892). *Psychology: The briefer course*. NY: Henry Holt.
- Janis, I. L., & Field, P. B. (1959). Sex differences and factors related to persuasibility. In C. I. Hovland, & I. L. Janis, *Personality & Persuasibility* (pp.55-68). CT: Yale University Press.
- Jordan, C. H., Whitefield, M., & Zeigler-Hill, V. (2007). In tuition and the Correspondence between implicit and explicit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93(6), 1067-1079.
- Kernis, M. H., Cornell, D. P., Sun, C. R., Berry, A., & Harlow, T. (1993). There's more to self-esteem than whether it is high or low: The importance of stability of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65, 1190-1204.
- Kwon, S. M., & Oei, T. P. (1992). Differential causal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automatic thoughts in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 Research*, 16(3), 309-328.
- Neiss, M. B., Sedikides, C., & Stevenson, J. (2002). Self-esteem: A behavioral genetics perspective.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6, 1-17.
- Pliner, P., Chaiken, S., & Flett, G. L. (1990). Gender differences in concern with body weight and physical appearance over the life span.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16, 263-273.
- Pyszczynski, T., & Cox, C. (2004). Can we really do without self-esteem: Comment on Crocker and Park (2004). *Psychological Bulletin*, 130, 425-429.
- Radloff, L. S. (199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I*, 385-40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Schoenbach, C., Schooler, C., & Rosenberg, F.(1995). Global self-esteem and specific self-esteem; Different concepts, different outcom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1), 141-156.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Smith, G. T., McCarthy, D. M., & Anderson, K. G. (2000). On the sins of short-form development. *Psychological Assessment*, 12, 102-111.
- Tennen, H., & Affleck, G. (1993). The puzzles of self-esteem: A clinical perspective. In R. F. Baumeister (Ed.), *Plenum series in social/clinical psychology* (pp.241-262). NY: Plenum Press.
- Werner, O., & Campbell, D. T. (1970). Translating, working through interpreters and the problem of decentering. In R. Naroll & R. Cohen (Eds.), *A handbook of method in cultural anthropology*,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Wiesenfeld, B. M., Swann Jr, W. B., Brockner, J., & Bartel, C. A. (2007). Is more fairness always preferred? Self-Esteem moderates reactions to procedural justi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0(5), 1235-1253.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Wojciszke, B., & Kujalowicz, A. S. (2007). Power influences Self-esteem, *Social Cognition*, 25(4), 472-494.

1차원고접수 : 2014. 09. 23.

수정원고접수 : 2015. 01. 20.

최종게재결정 : 2015. 01. 26.

A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State Self-Esteem Scale

Hongseok Park

Sungshin Women's Univ.

Jeong Mi Lee

Yongmoon Graduate School of
Counselling Psychology

The present study proceeded with 3 experiments in order to propose a trustworthy, valid and multi-dimensional criterion for measuring self-esteem. To accomplish such goal,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State Self-Esteem Scale (K-SSES), which examines the measurement of short-lived changes in self-esteem was conducted. In study 1, Twenty items originally developed by Heatherton and Polivy (1991) went through a translation and reverse-translation procedure to be adapted prior to data collection and three consecutive studies that support the scales' validity were presented. Psychometric analyses revealed that the K-SSES has 3 correlated factors: performance, general, and social self-esteem. Statistical analysis revealed that the K-SSES is a reliable and valid measurement for Korean. In study 2 and 3, effects of self-esteem enhancement intervention on K-SSES scores were examined. And it was concluded that the K-SSES is sensitive to these state-like change of self-esteem. Therefore, it was supported that the K-SSES was sensitive enough to measure the change of state self-esteem for Koreans and to distinguish the differences among sub-scal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K-SSES can be used for measuring clinical change in self-esteem and untangling the confounded relation between mood and self-esteem, and so on.

Key words : K-SSES, State Self-Esteem Scale, State Self-Esteem, Self-Esteem, Validation

부 록

(N = 239)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1																				
2	.05	1																			
3	.42***	.05	1																		
4	.28***	.33***	.10*	1																	
5	.20***	.20***	-.02	.42***	1																
6	.39***	.09	.36***	.23***	.18**	1															
7	.24***	.11*	.45***	.26***	.31***	.24***	1														
8	.15**	.32***	.09	.31***	.26***	.09	.32***	1													
9	.48***	.14*	.33***	.20***	.29***	.48***	.21***	.11*	1												
10	.35***	.23***	.16**	.42***	.32***	.22	.29***	.30***	.26***	1											
11	.38***	.23***	.35***	.33***	.20***	.45***	.26***	.14**	.42***	.35***	1										
12	.37***	.27***	.51***	.25***	.16**	.39***	.31***	.18**	.36***	.23***	.59***	1									
13	.14*	.41***	.13*	.26***	.20***	.11*	.16**	.54***	.08	.35***	.17**	.22***	1								
14	.50***	.20***	.33***	.30***	.27***	.38***	.24***	.14*	.48***	.25***	.49***	.40***	.16**	1							
15	.17**	.20***	-.02	.38***	.39***	.20	.19**	.34***	.24***	.40***	.29***	.13	.27***	.25**	1						
16	.29***	.17**	.13*	.40***	.43***	.29***	.32***	.38***	.30***	.40***	.23***	.29***	.17**	.51***	.51***	1					
17	.21***	.31***	.20***	.23***	.27***	.23***	.19**	.29***	.18**	.26***	.24***	.24***	.38***	.23***	.30***	.41***	1				
18	.30***	.26***	.18**	.47***	.43***	.20	.26***	.33***	.33***	.31	.22***	.21	.35***	.27***	.53***	.45***	.37***	1			
19	.29***	.27***	.10	.55***	.33***	.25**	.12*	.30***	.28***	.32***	.32***	.22***	.37***	.32***	.47***	.42***	.30***	.60***	1		
20	.28***	.23***	.17**	.47***	.35***	.24***	.22***	.46***	.25***	.40***	.28***	.20***	.50***	.26***	.40***	.48***	.41***	.50***	.54***	1	

*** $p < .001$, ** $p < .01$, * $p < .05$